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	---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

- 해외건설 시장 동향 및 시사점

주요 동향

◇ 미연준, 9월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증대

- 미연준 의장, 연중 금리 정상화 의견 피력하며 인상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언급(5.22)
 - 노동시장 개선과 함께 인플레이션율이 중기적으로 2%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
 -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2/4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하고 고용창출 및 실업률도 안정화되며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전문가 서베이 결과, 73%는 9월부터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7%는 6월로 전망(WSJ, 5.14)
 - 지난 4월에는 65%가 9월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 EU, 유로존 금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1.5%로 상향 조정, 내년 성장률 전망치(1.9%)는 유지
 - 저유가, 유로화 약세 및 경기부양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으로 향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
 -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그리스는 하향, 이탈리아는 유지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월 전망치	5월 전망치	2월 전망치	5월 전망치
유로존	1.3	1.5	1.9	1.9
독일	1.5	1.9	2.0	2.0
프랑스	1.0	1.1	1.8	1.7
스페인	2.3	2.8	2.5	2.6
그리스	2.5	0.5	3.6	2.9
이탈리아	0.6	0.6	1.3	1.4

주요 동향

◇ 일본, 1/4분기 GDP 2.4%(전기대비 연율기준) 증가(5.21)

- 전분기(1.1%) 및 시장 전망치(1.6%)를 상회하며, '14년 1/4분기(4.9%) 이후 최대치 기록
- 소비세 인상('14년 4월)에 따른 부정적 영향 감소, 유가하락 및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이 설비투자로 이어져 성장확대에 기여
- ※ GDP 증가율(%) : $\Delta 6.9('14.2Q) \rightarrow \Delta 2.1(3Q) \rightarrow 1.1(4Q) \rightarrow 2.4('15.1Q)$
- ※ 설비투자 증가율(%) : $\Delta 19.2('14.2Q) \rightarrow \Delta 0.4(3Q) \rightarrow \Delta 0.2(4Q) \rightarrow 1.4('15.1Q)$
- ※ 민간소비 증가율(%) : $\Delta 19.0('14.2Q) \rightarrow 1.4(3Q) \rightarrow 1.5(4Q) \rightarrow 1.4('15.1Q)$
- 3/4분기 이후에는 엔화 약세 및 유가 하락세 둔화 등으로 1% 중반대로 둔화될 가능성(일본경제연구센터)

◇ 신흥국, 5월중 해외자본 순유출 증가 전망

- 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5월중 포트폴리오 투자로 순유출된 해외자금 규모는 최대 150억 달러로 추산
- 한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7개 신흥국에서 5월중 포트폴리오 투자로 순유출된 해외자금 규모는 32억 달러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및 유럽 등 선진국 채권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분석

◇ 중국, 1/4분기 국제수지 사상최대 적자(800억 달러) 기록

- 경제둔화 우려 증대, 금리 인하 및 미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자본유출 증가로 자본수지가 사상최대 적자(1,590억 달러) 기록
- 경상수지는 '10년 4/4분기 이후 최대 흑자(790억 달러) 달성
- ※ 국제수지 추이(억달러) : $572('14.2Q) \rightarrow 632(3Q) \rightarrow 365(4Q) \rightarrow \Delta 800('15.1Q)$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 $734('14.2Q) \rightarrow 722(3Q) \rightarrow 670(4Q) \rightarrow 790('15.1Q)$
- ※ 자본수지 추이(억달러) : $\Delta 162('14.2Q) \rightarrow \Delta 90(3Q) \rightarrow \Delta 305(4Q) \rightarrow \Delta 1,590('15.1Q)$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① 외환시장

구 분	'14년말	'15. 5. 15	'15. 5. 22	전주비
₩/US\$	1,088.5	1,085.7	1,090.1	4.4
₩/100¥	910.12	908.8	902.5	△6.3
CNY/US\$	6.2020	6.2060	6.1974	△0.0086
¥/US\$	119.09	119.5	120.8	1.3
US\$/€	1.2174	1.1382	1.1157	△0.0225

② 채권시장

구 분	'14년말	'15. 5. 15	'15. 5. 22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2.10	1.88	1.87	△0.01
미국 국채(10년)	2.17	2.14	2.21	0.07

③ 주식시장

구 분	'14년말	'15. 5. 15	'15. 5. 22	전주비
한국 KOSPI	1,915.59	2,106.50	2,146.10	39.60
미국 DJIA	17,823.07	18,272.56	18,232.02	△40.54

④ 해운시장

구 분	'14년말	'15. 5. 15	'15. 5. 22	전주비
BDI 지수*	780	634	586	△48
HRCI 지수**	538.1	771.5	778.0	6.5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US\$ / 배럴)

유 종	'14년말	'15. 5. 15	'15. 5. 22	전주비
WTI유 현물	53.27	59.69	59.72	0.03
Brent유 현물	57.33	66.81	65.37	△1.44
두바이유 현물	60.11	64.58	63.69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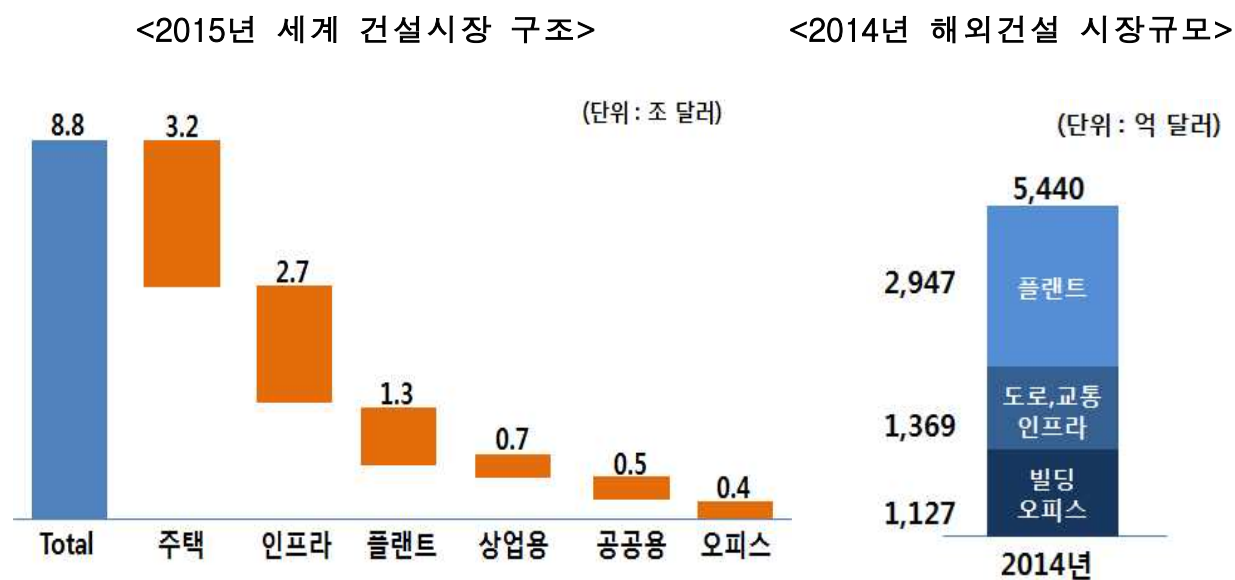
◆ 최근 저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검토코자 함.

1. 해외건설 시장 전망 및 동향

- 세계 건설시장은 2018년까지 연 4%씩 성장하여, 10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
 - 2014년 세계 건설시장은 8.5조 달러였으며, 2015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주택 3.2조 달러, 도로·항만·공항 등 인프라 2.7조 달러, 플랜트를 포함한 비주택 2.6조 달러로 구성
 - 2014년 기준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3.9조 달러, 유럽 2조 달러, 북미 1.2조 달러, 중남미 0.6조 달러, 중동 0.3조 달러, 기타 0.5조 달러 순
- 세계 건설산업의 민간부분 참여 확대¹⁾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접근 가능한 해외건설시장¹⁾ 규모가 커지고 있음.
 - 2014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 8.5조 달러 중 외국기업에게 개방된 건설시장 규모는 5,440억 달러에 불과
 - 접근 가능한 해외건설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6.5%에 불과한 이유는 주택 및 인프라 건설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
 - 개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참여와 민관협력 사업 확대 추세로 해외건설 시장은 2018년까지 연 7%씩 성장하여 8,0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

1) 해외건설시장 : 세계 건설시장 중 외국 건설기업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

- 2014년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플랜트 2,946억 달러, 인프라 1,368억 달러, 빌딩 및 오피스시장 1,126억 달러 순
 - 도로, 교량, 항만, 교통 등 인프라시장이 2018년까지 연 8%씩 성장하여 가장 매력적인 분야가 될 전망
- 지역별 해외건설시장은 아시아가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21%, 중동 15%, 북미 15%, 아프리카 12%, 남미 10% 순
 - 타 지역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이 해외건설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



자료 : IHS, ENR

□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

- 해외건설시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스페인, 중국 등 선진 주요 10개국 시장이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 유럽은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중동 및 중남미 지역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수익 분야인 환경 및 컨설팅 분야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
- 중국은 AIIB(Asia Infra Investment Bank)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

2.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및 경쟁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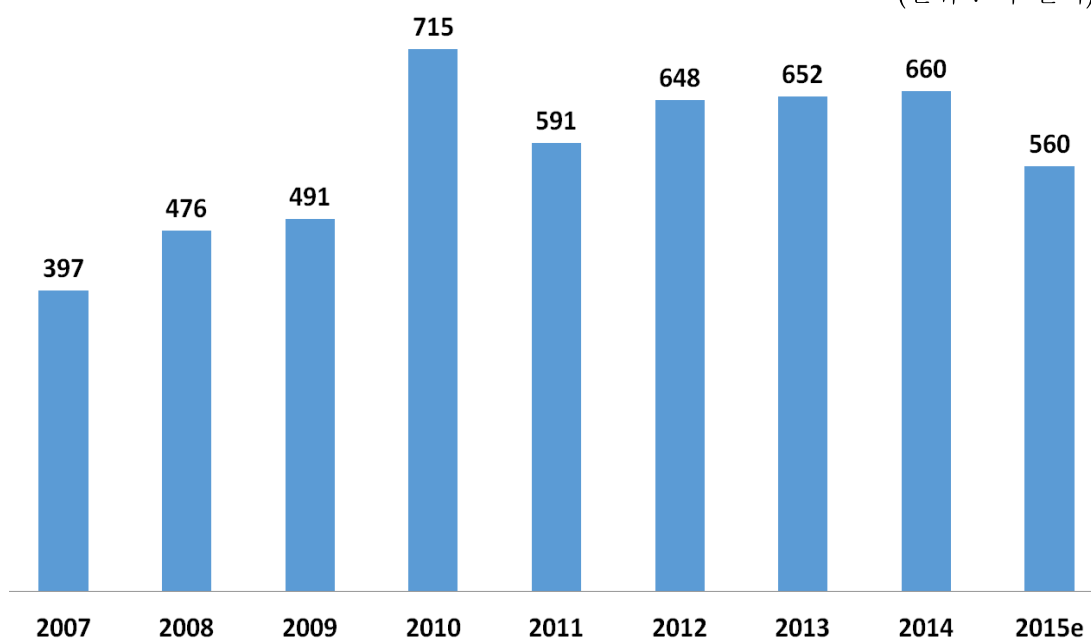
□ 2015년 해외건설 수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 2015년 5월까지 수주액은 22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 715억 달러를 정점으로, 2012년 648억 달러, 2013년 652억 달러, 2014년 660억 달러로 정체 상황
- 국내 해외건설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중동(313억 달러, 수주 비중 47%) 및 플랜트(519억 달러, 수주 비중 78%)분야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중에서 중동 비중은 55.6%으로 수주 편중도가 높아 중동시장 불확실성에 취약한 구조
-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560억 달러로 전망되며, 수주 감소의 주원인은 저유가로 인한 중동 수주 감소 때문
 - 아시아 지역 수주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 수주 부진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1) 참조

<국내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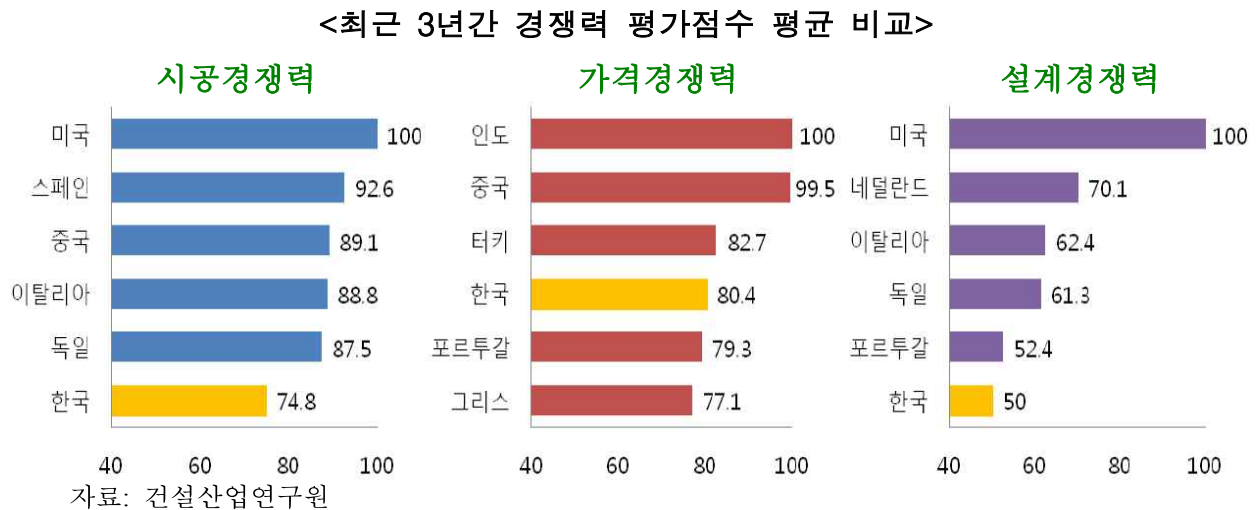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

- 국가별 시공경쟁력²⁾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12위, 2012년 8위, **2013년 4위로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했으며, 가격경쟁력은 세계 4위**
 - 해외건설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대형수주가 증가하면서 시공경쟁력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 가격경쟁력은 인도, 중국 대비 2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으며,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가격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설계경쟁력은 2011년 19위, 2012년 10위, **2013년 19위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50%에 불과함.**
 - 미국 및 유럽 선진국가 대비 설계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건설시장에서 성과확대를 위해선 설계분야 경쟁력 확보가 절실
(참고자료 2) 참조



□ 주요 분야별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주력 수출산업인 플랜트 분야 기술경쟁력은 최고 수준 대비 69%에 불과

- 토목 분야 기술경쟁력이 7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플랜트 분야는 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최고 기술국과의 격차는 5.4년인데 비해, 중국과의 격차는 2.8년이며, 특히 플랜트 기술격차는 0.3년에 불과

2) 시공경쟁력 :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新넛크래커³⁾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

<2013년 기준 건설산업 국내 기술경쟁력 현황>

주요 기술부분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기술격차	
			한국 vs 최고국	한국 vs 중국
종합	미국	73.2	5.4	2.8
토목	일본	78.2	5.1	2.9
교통인프라	미국	76.4	4.0	3.1
수자원	미국	71.9	6.8	4.7
건축	미국	70.5	5.5	2.9
플랜트	미국	69.1	5.5	0.3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시사점

- 국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의 밸류체인 확장 전략이 필요
 - 국내 기업들은 경쟁강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세설계, 자재조달, 시공영역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
 - 부가가치가 높은 개념설계·기본설계, 기획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중국 및 인도 등의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울 전망
 - 후발업체로부터 선진업체로 갈수록 밸류체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기업들의 밸류체인 확장은 당연한 과제

<국내 기업들의 밸류체인 내 사업현황 및 확장 방향>



3) 新넛크래커 현상 : 2014년 전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열위에 있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넛크래커 상황에 다시금 빠지는 현상

- 유가변동에 취약한 수주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아시아 및 중남미 등 新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다변화 전략이 필요
 - 2020년까지 8.2조 달러의 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인프라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전망
 - 특히 아시아 물류시장 성장으로 **공항 및 철도** 관련 PPP사업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시장도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전망
 - 중동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며, 특히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시장 재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아시아는 우리나라 ODA 최대수혜지역인 바 이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개척을 더욱 강화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사업발굴 단계부터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 중
 - 경제발전 단계별, 산업정책 및 자원보유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전략 수립하여 지원 중

확인자	팀 장 이 윤 관
작성자	선임연구원 강 정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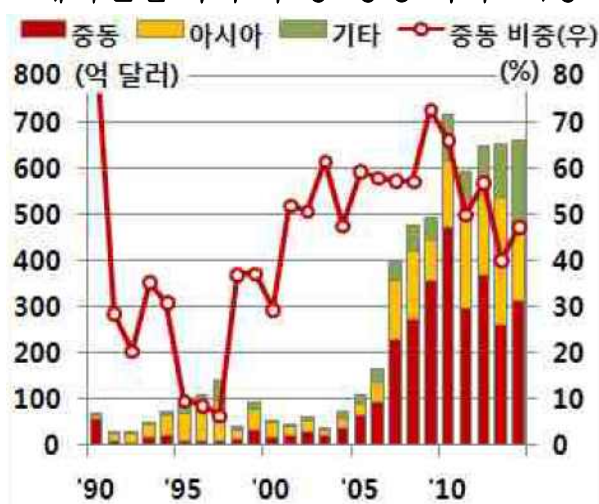
(참고자료 1)

해외건설 수주와 유가의 상관관계

□ 중동지역 수주액이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40%가 넘어 유가와 해외건설 수주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과 국제유가의 상관관계수는 0.92

<해외건설 수주액 중 중동 수주 비중>



<해외건설 수주 및 국제 유가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석유공사, 현대경제연구원

- 2014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6달러였으나, 2015년 평균 유가는 전년대비 34% 감소한 64 달러로 전망
- 2015년 하반기에도 큰 폭의 유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발 수주감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5월까지 중동 수주액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66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며, 하반기 유가의 소폭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동지역 수주액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200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14	2015				
		평균	1/4	2/4	3/4	4/4	평균
CERA (15.1.9.)	Dubai	96.61	55.85	60.79	67.1	71.66	63.95
	Brent	98.99	58.00	62.67	69.67	73.67	66.00
	WTI	93.17	52.60	55.57	62.40	66.31	59.22

자료: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우리나라 해외건설 경쟁력 현황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및 인도의 추격이 거세질 전망

- 우리나라 시공경쟁력 순위 상승(2013년 4위)은 고무적이나, 단순시공 위주의 건설은 경쟁력 증대에 한계가 있음.
 - 순위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나, 14년도 단순도급형 공사 비중이 85%로 여전히 높으며, 수주의 대다수는 단순시공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해외건설시장의 PPP 사업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개발형 사업 비중이 3.1%에 불과
- 우리나라의 인건비 수준은 미국의 1/3수준, 일본의 1/2 수준이지만, 중국·인도·터키 등의 2배 이상으로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에는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 설계경쟁력은 지난 3년간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건설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구조를 사업기획과 엔지니어링 등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의 전환이 필요

<우리 기업들의 사업전략 방향>

